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제목 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대발생... 주민들 대피령이 시급하다!

성명서

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대발생... 주민들 대피령이 시급하다!

- 정부 당국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라!

-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가 대발생 상태에 돌입했다.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상태면 당장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부터 대피시켜야 한다.
- 지난 7월 26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안동댐과 영주댐 녹조조사를 벌였다. 당일 현장 상황은 댐 전체가 녹조로 완전히 뒤덮였고, 녹조 특유의 고약한 악취가 풍겨서 잠시도 서 있기 곤란한 지경이었다.
- 당일 어렵게 시료를 떠서 부경대에 맡겼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정부가 벌이는 방식 그대로 남조류 세포수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심각하다. 두 댐 모두 100만셀을 넘긴 것이다. 안동댐은 110만셀이 넘었고, 영주댐은 190만셀을 넘어 200만셀에 거의 육박했다.

07월 26일	Sample	Cell counting	Dilution factor	Usage	Microscope	Final Value (#/1 mL)
1	영주댐	35	1	10 uL	X100	1,942,500
2	안동댐	20	1	10 uL	X100	1,110,000

- 지금 정부당국의 조류 대발생 기준은 100만셀이다. 정부 당국의 기준으로 쳐도 지금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는 대발생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조류대발생시 행동 요령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류 대발생(녹조)시 국민행동요령(안전취약계층 포함)

가.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어패류 어획 및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라. 피부접촉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마. 인근 지역 주민들은 TV, 라디오 등을 청취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그야말로 국민재난 수준의 녹조가 창궐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창원대와 부경대 연구진과 낙동강네트워크는 2022년부터 녹조 에어로졸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비산하는 것을 밝혀냈다.
- 즉 녹조 독이 에어로졸 상태로 떠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우리 공기 속에 녹조 독이 포함돼 있어서 안동댐이나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녹조 독을 흡입하게 된다는 말이다.

- 심각하다. 그러니 당장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일반인들의 이들 댐 방문을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 실로 국민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 당국은 즉시 이 사실을 널리 공표하고, 이 일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즉시 소개시키고, 일반인들의 댐 방문을 금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이같은 사태가 올 동안 정부 당국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었는지 이 사태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심각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붙임 : 1. 국민행동요령(녹조).
2. 채수 사진. 1부. 끝.

2024.7.31.

대구환경운동연합 / 안동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 담당 : 사무국장 서옥림(010-2864-0215) e-mail : andong@kfem.or.kr
■ 시행일자 : 2024년 7월 29일
■ 공동의장 : 김수동, 최형석
(우)36673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45. Tel. 054)843-9333

조류(녹조)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낚시·수상스키·수영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접촉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어패류 어획 및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사고지역 주민들은 TV, 라디오 등을 청취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조류 대발생(녹조) 지역 접근이나 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240726 안동댐



240726 영주댐



